메트로 2013년 5월 3일 금요일 제2724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2
양의지 맹타' 두산, KIA격파

# 비싼값 못하는 '분통 공기청정기'

### 22개 제품 비교결과 '고가일수록 성능 우수' 틀려
### 유지비용 최대 6배 차이 배보다 배꼽 더 큰 경우도

공기청정기의 불편한 진실이 공개됐다. 가격이 비싼 만큼 성능이 좋은 건 아니었다. 심지어 제품값보다 유지비가 더 드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일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6개 회사 22종 제품의 품질을 비교해 발표한 결과, 비싼 만큼 제값 못하는 제품들이 다수 있었다.

표준 사용면적 30㎡ 미만인 제품 중에서는 청호나이스(CHA-310BA) 제품이 조사 대상 가운데 가격(44만3000원)은 두 번째로, 연간 유지 관리 비용(20만2000원)은 제일 비쌌지만 기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사용면적이 17.6㎡로 가장 작았다.

교원(KW-A02GJ) 제품은 가격이 45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유지 관리 비용은 18만4000원으로 두 번째였다. 탈취효율이 우수한 편이었지만 표준 사용면적은 19.0㎡에 불과했다.

청호나이스(CHA-310BA), 코웨이(AP-0512AH), LG전자(LA-S066DW) 제품은 탈취효율·소음·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서 같은 등급을 받았지만 가격은 각각 44만3100원, 25만6680원, 25만1270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 났다.

유지 관리 비용은 청호나이스 제품이 20만1812원, 코웨이 제품이 17만6475원에 달했고, LG전자 제품은 3만7485원으로 차이가 컸다.

30㎡ 이상~40㎡ 미만인 제품에서는 유지·관리 비용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가습 기능을 보유한 제품 중에서 LG전자(LA-U111DW)와 코웨이(APM-1011YH) 제품이 탈취 효율과 소음에서 '양호' 또는 '보통'을 받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3등급으로 같았으며 가격은 48만3660원과 51만2170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유지 관리 비용은 16만8165원, 48만4772원으로 차이 났다. 코웨이 제품의 경우 한 해 유지비가 제품 가격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2년 사용 시 1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드는 셈이다.

가습·제습 기능이 있는 코웨이(APM-1211GH) 제품의 경우 유지비가 더 들어 52만2168원에 달했다. 비교 대상 가운데 가장 저렴했던 삼성전자(AC-375CPAWQ) 제품 유지비(8만8035원)와 5.9배(43만4000원)나 차이 났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렌탈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필터를 교체하고 있어 실제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동일하지 않은 사양의 제품들을 놓고 비교한 소보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40㎡ 이상~60㎡ 미만 제품의 경우 미국산 웰퓸(APR25530K) 제품이 가격은 저렴했지만 탈취 필터가 없어 탈취 성능이 떨어지면서 소음이 크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4등급에 불과했다.

60㎡ 이상인 제품 중에서는 LG전자(LA-P185DW) 제품이 공기청정화성능과 소음이 양호했지만 가격은 59만6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쌌다. 웰퓸(APR45230K) 제품은 연간 유지 관리비용이 무려 52만2000원으로 제품가격(36만3000원)보다 1.4배나 비쌌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때는 적정 용량을 가진 제품 중 탈취 효율·소음·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따져봐야 하는데 필터교체 같은 유지·관리 비용에 차이가 크므로 이를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날씨는 궂지만… 마음은 이미 비키니 계절** 2일 서울 한강로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수영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다. 이마트는 봄 날씨가 사라지고 곧바로 초여름 날씨로 이어지는 최근 계절 경향에 따라 수영복 판매를 예년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겼다. /뉴시스

■ 연간 유지관리 비용 최저·최고가 제품

자료: 한국소비자원 제공

| 구분 | 연간 유지 비용 최저 | | 연간 유지 비용 최고 | | 차이 |
|---|---|---|---|---|---|
| | 제품명 | 비용 | 제품명 | 비용 | |
| 30㎡ 미만(개별) | LG전자(LA-S071DW) | 3만7492원 | 청호나이스 CHA-310BA) | 20만2000원 | 최대 5.4배(16만5000원) |
| 30㎡ 이상~40㎡ 미만 | 삼성전자(AC-375CPAWQ) | 8만8000원 | 코웨이 APM-1211GH) | 52만2000원 | 최대 5.9배 43만4000원) |
| 40㎡ 이상~60㎡ 미만 | 삼성전자(HC-J451WS) | 7만5000원 | 웰퓸 APR25530K) | 37만5000원 | 최대 4.9배(30만원) |
| 60㎡ 이상 | LG전자(LA-P213DW) | 18만원 | 웰퓸(APR45230K) | 52만2000원 | 최대 2.9배(34만2000원) |

## "더 큰 꿈과 희망을 품어라" 서울 어린이날 행사 풍성

**동심의 표정** 어린이날을 사흘 앞둔 2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의 2013년 어린이날 기념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려 어린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무료 공연과 실속 이벤트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관련기사 10·12면>

우선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이날 하루 종일 이어진다.

오후 2시 대극장에서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과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이 협연하는 '전원의 행복' 어린이 클래식 이 무대에 오르며 M씨어터에서는 가족무용극 '춤추는 허수아비'가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가족 패키지 티켓 등에는 20~50% 할인율이 적용돼 미리 꼼꼼히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

광장계단 앞 광화문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매직 미니서커스와 비눗방울쇼 등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와 음악회가 열리는 서울시립미술관과 문화장터가 서는 서울역사박물관을 함께 둘러보면 더욱 풍요로운 주말이 될 전망이다.

삼청각에서는 오후 1시 어린이 음악회, 오후 5시부터는 어린이 음악극이 열리며 놀이마당에서는 전통악기 체험, 한지 공예 등 각종 만들기 체험이 종일 무료로 진행된다.

남산 애니메이션센터에서는 코메버스 타요의 남산나들이, 캐릭터 체험전이 펼쳐지며 북서울꿈의숲,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 한강생태공원 등에서는 자연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며 반딧불이 체험, 만화영화 상영, 인형극, 댄스쇼, 북 밀리 축제 등을 만끽할 수 있다.

/채동호기자 ehsean@

# 내 차에 지지후보 스티커 붙여도 된다

## 전화 선거운동 상시 허용·지지율 10% 이하면 TV토론제한 등 추진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후보자나 예비후보 예정자의 경우 사전에 선거운동 전화 임을 표시하면 상시로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홍보할 수 있는 어깨띠, 표지판, 표찰,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거주하는 집이나 자동차에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 부착도 허용된다.

대선 TV토론 참여 범위는 지지율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추진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1~2위 후보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식이 제안됐다.

또 선관위에 신고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는 옥내에서 유권자와 만나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이른바 타운홀미팅, 북콘서트 형식의 선거 방식도 가능해져 실제적인 접촉면도 늘 것으로 보인다.

쟁점인 선거 기간 후보 사퇴 금지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의견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60년 넘게 고착된 규제 중심의 선거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llegible] grass[illegible]@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 "부모부양의무 가족에 있다"는 청소년 35%뿐

● 부모 부양 의무가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비율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201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이같이 대답한 청소년이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부모 부양 의무는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져야 한다는 대답은 50%로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높아졌다.

## 유정복 장관 "스쿨존 교통범칙금 추가인상 검토"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2일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학교의 주요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내 범칙금은 일반지역보다 2배가량 증과되고 있다. 이를 추가로 더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illegible]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성북구 한 초등학교 앞은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제공

## 지금 살고있는 전셋집 사면 3.5% 저리 대출

### '과거' 있는 무주택자도 어제부터 생애 첫 혜택

생애 처음으로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월 부담금이 한결 줄어들게 됐다. 30년 만기 대출 상품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또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3.5%의 저리 대출이 가능해졌다.

◆ 최초 주택구입 30년만기상품 출시…월 부담금 줄어

4·1대책에 따라 30년 만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2일부터 시작됐다. 또 전세자금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이 허용됐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4·1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되는 30년 만기 대출은 전용면적 60㎡·주택 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5%, 전용면적 60~85㎡·주택 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7%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과거 있는' 무주택자를 위해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됐다.

전용면적 85㎡ 이하·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70% 이상인 하우스푸어의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거주 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이때 주택 구입자의 소득은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임차주택을 살 때는 근로자 서민주택 대출 기준인 전용면적 85㎡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재형기자 kzyman@

도난 18년만에 다시 찾은 성철스님 유시 원택스님이 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8년만에 되찾은 성철스님의 유시(遺詩)를 알리는 문서를 설명하고 있다. 이 유시는 1981년 1월 당시 조계종 종정이던 성철스님이 불국사와 월정사 주지 임명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사태를 다스리며 쓴 글이다. 1995년 한 사진작가가 성철스님의 유품을 촬영하던 중 유시를 빼돌렸고 지난해 사설경매에 나온 것을 미행에 되찾았다. /연합뉴스

## 北 억류 한국계 미국인 15년 노동교화형

대화 물꼬 포석 관측

북한은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미국 공민 배준호에 대한 재판이 4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돼 반공화국 적대범죄 행위를 감행한 배준호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2009년 체포된 미국 여기자들과 2010년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에게 각각 12년, 8년을 선고한 데 비하면 배씨의 형량은 매우 높은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중형을 선고한 것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미국을 압박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라선시에 관광 목적으로 입북해 꽃제비 소년들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억류됐다. /배동호기자 eliever@

뉴스 & 뉴스

## 방문판매원 등 100만명 이달 근로장려금 신청

●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00만5000여 명을 상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휴대전화, 모바일 앱, 인터넷(www.eitc.go.kr), ARS 등 전자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는 서면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승리기자

## 흡연 여성이 남성보다 대장암 발병률 두배 높아

● 흡연으로 인한 대장암 발병 위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르웨이 트롬소대학 연구팀이 남녀 60만여 명을 대상으로 14년간 조사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뉴스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흡연 여성은 비흡연 여성에 비해 대장암 발병률이 약 20% 높았으며 남성은 같은 경우 8% 높았다. /김승리기자

**바리스타 재미있네** 2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원시 진로직업교육학년제 연구학교인 연희중 학생들이 전문 바리스타로부터 커피 제조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짝 없으면 치매위험 3배

### 노인 10명중 1명 깜빡깜빡…2024년엔 100만명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치매 전 단계인 인지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별·이혼·별거·미혼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4~12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6008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치매 유병률(전체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의 비율)은 9.18%에 달했으며 현재 치매 환자는 54만1000명이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치매 환자는 20년마다 2배 늘어 2024년께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환자의 치매 정도별로는 가벼운 치매가 58.8%, 중등도 치매는 25.7%, 중증 치매는 15.5%를 차지했다. 아직 치매 상태는 아니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경도 인지장애 유병률은 27.82%였다.

연령별로는 65~69세 연령대를 기준으로, 75~79세, 80~84세는 치매 위험도가 각각 3.76배, 5.7배에 달했다. 85세 이상의 경우 36.68배 높아졌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58배 높았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무학자의 경우 1년 이상 학력자보다 9.17배 높았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2.9배, 두부 외상 경력이 있는 경우 3.8배,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 2.7배가량 위험도가 상승했다.

/배동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 '살인진드기' 국내서도 발견

### 바이러스 전국 분포…인체감염 확인된적은 없어

중국과 일본에서 잇따라 사망자를 낸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까지 국내에 서식하는 진드기를 조사한 결과 작은소참진드기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SFTS는 야생 진드기에 물려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열이 나고 피로감을 느끼며 식욕이 떨어지고, 출혈 증상을 유발하며 아직까지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치료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중국에서 최초로 보고된 이후 지난해까지 2047건이 확인됐으며 일본에서는 올해 1월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다.

보건당국은 유사 증상을 보이는 원인 불명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의료 기관에 진단신고기준을 공지하는 등 인체 감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살인 진드기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결핵감염증과 관계자는 "SFTS는 예전부터 있던 질병"이라면서 "아직 진드기에 물린 이들에게서 SFTS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전보람기자 kwon@

# '갤럭시S4' 3D기능 사용땐 과열 논란

3차원(3D) 기능을 사용하면 최고 온도가 58도까지 상승해 저온 화상 위험이 있다.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4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전자제품 하드웨어 전문 리뷰사이트인 플레이웨어즈는 갤럭시S4로 3D 벤치마크 테스트를 1시간 벌인 결과, 앞면 최고 온도가 54.9~55도, 뒷면 최고 온도가 56.2~56.8도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함께 실험한 갤럭시노트II의 최고 온도(앞면 41.4도·뒷면 41.9도)나 LG전자 옵티머스G 프로의 최고 온도(앞면 42도, 뒷면 44.1도)와 비교해 10~15도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나친 과열을 막기 위해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스로틀링' 설정값이 부적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국명기자

구청소식

## 금천 푸르미 우수사업 선정

서울 금천구는 보건복지부의 '관역형·지역특화형 우수자활사업'에 '금천 푸르미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금천 푸르미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이 수거한 재활용품, 순회 매입, 소형 폐가전과 폐유지 수거 등으로 이뤄졌다.

**연탄 갈기 체험** 2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은을 인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에서 어린이들이 협진 등 체험하며 연탄을 갈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 그림 박상철

**대처 영국 최초 여성 총리 당선**

1979년 5월 3일 … 마거릿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이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하면서 영국 최초의 여성 수상이 탄생했다. 그녀는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과감한 시장주의 정책을 도입해 고질적인 영국병을 치유하려고 했다. 장기간의 석탄 노동자 파업을 진압하고 주요 국영 기업을 민영화했으며 사회복지 혜택을 감축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철저한 반공주의 정책을 펼쳤고 EU 가입에 적대적이었으며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영국의 단골 … 대처는 두 번이나 더 총리에 당선되며 11년간 영국을 재정비했다. 그러나 그녀는 빈부 격차, 제조업의 몰락을 초래했고 영국의 경제 문제를 근본부터 치유하지 못했다는 반대자들의 비판도 듣다.

## 영화제작 지원 등 8편 선정

부산영상위원회는 올해 부산지역 제작 장편영화와 영화 기획 개발 인큐베이팅 지원 작품으로 각각 4편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지역 영화제작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장편영화 연출 경험이 없는 신인 감독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처음으로 다큐멘터리 작품까지 지원폭을 넓혔다.

지원작으로는 손승웅 감독의 '영도', 장희원 감독의 '눈이라도 내렸으면', 김지곤 감독의 '학사을', 김정근 감독의 '그림자들의 섬' 등 4편이다.

선정작에는 지원금 외에도 부산영상위원회가 보유한 카메라와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를 대여할 경우 사용료를 대폭 할인해주고, 부산영상벤처센터의 상상오피스를 제작사무실로 제공한다.

또 영화 기획 개발 인큐베이팅 사업 최종 선정작 4편에는 기성 시나리오 작가 또는 프로듀서가 4개월간 전담 멘토링을 통해 시나리오로 개발하는 과정을 집중 지도하며, 작품당 300만원의 기획 개발 진행비가 지원된다.

심사를 거쳐 최종 1편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열리는 BFC 프로젝트 피칭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 송도해수욕장 명물 복원 지연

올해 부산 송도해수욕장 개장 10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송도 명물의 복원이 늦어지고 있다.

2일 부산 서구에 따르면 송도 4대 명물로 이번달 복원이 완료돼 운행 예정이던 해상 다이빙대와 늦잣배인 포장유선의 현재공사가 지연돼 예정된 날짜에 복원되지 못하게 됐다.

당초 이들 명물은 지난 1일 복원이 완료돼 시범 운행을 거친 뒤 6월 초 해수욕장의 개장과 함께 본격 운행될 예정이었으나 생각보다 공사가 늦어진 것.

이에 따라 6월 말경 복원이 완료돼 운항에 들어갈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또 서구는 올해 명물 2개 부활을 시작으로 해상 케이블카와 구름다리 복원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복원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송도 4대 명물은 해상 다이빙대, 늦잣배인 포장유선, 케이블카, 구름다리로 1990년대 이전 송도해수욕장이 쇠퇴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인기 상품이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편집인 남운호
사장 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민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호준
서울광고문의 (02)721-9351 3
부산광고문의 (051)658-2100
독자센터 (02)721-9862
2002년 5월 31일 창간 2002.5.28 등록번호 서울 가 00197

#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4명

### 원장·보육교사 1명 폭행혐의 영장…학부모 피해사실 증언 담은 탄원서 제출

부산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자가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공립어린이집 원장 민모(40)씨와 보육교사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육교사 서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민 원장은 지난해 11월 초 원장실에서 윤모(1)양의 이마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12월 초에는 주모(1)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달 17일 교실에서 이모(1)양을 밀치고서 밥공예다가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18일에도 인모(1)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다.

서씨 역시 지난달 17일 이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로 입건됐다. 이양은 4분 간격으로 여교사 2명에게 잇따라 가혹 행위를 당한 것이다.

이에 여교사들은 경찰에서 폭행을 인정했다. 반면 민 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김씨 등 전 현직 보육교사 3명의 진술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 40명은 원장의 폭행 사실에 대한 증언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경찰은 보육교사들이 유아를 학대하는 장면이 찍힌 CCTV를 증거물로 확보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원장 등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기장 멸치털이 한창 2일 공치축제가 개막한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어부들이 그물에 걸린 멸치를 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역시 부산은 '의료관광 중심도시'

### 메디컬 아시아 대상 차지

부산시가 의료관광 중심 도시라는 것을 입증했다.

부산시는 한 중 언론 3사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메디컬 아시아 2013' 의료관광 선도 자치단체 부문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상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의료관광 지자체 우수기관은 네티즌 조사 90%, 전문위원 평가 10%의 배점으로 선정됐으며, 부산시는 네티즌 조사에서 945점(1000점 만점)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 구축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개최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형 광고판 설치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했다.

또 의료관광 홍보단 해외 파견, 해외 의료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 국제행사 참여, 외국인 건강검진, 외국인 환자 통역 지원, 의료기관별 외국인 환자 수용 태세 확립을 위한 실무 매뉴얼 개발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상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다.

## 직할시 승격 50년 기념 타임캡슐 공식명칭 선정

부산시는 직할시 승격 50년을 기념해 부산 발전 50년과 미래 도약 100년의 상징으로 오는 10월 시민공원 내 매설 예정인 타임캡슐의 공식 명칭을 '희망부산 100년 타임캡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직할시 5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부산 발전의 역사성과 미래 도약 100년을 준비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명칭으로 가칭으로 사용하던 '희망부산 100년 타임캡슐'을 공식명칭으로 선정했다. 공모전 응모 작품 중 우수작품 11건을 가작으로 선정해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할인

부산 남구는 이달부터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47종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최고 5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체 조례로 감면 근거를 마련해 서민경제 부담 완화와 무인발급창구 활성화를 위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할 경우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때 내는 수수료 1000원의 절반인 5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창구에서 400원을 지불해지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2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 창립 50주년 비락 '착한 가격' 신제품 출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주)비락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렴한 가격으로 신제품 3종(남해흑마늘100·야생블루베리100·검은콩 두유)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남해흑마늘100'은 남해 흑마늘에 인공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발효 숙성시켜 마늘 특유의 자극적인 맛은 줄이고 유익한 성분을 더욱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또 '야생블루베리100'은 북미산 야생 블루베리를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고 만들었다. 이들 상품은 50% 할인가인 3만원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비락 검은콩 두유도 가정의 달을 맞아 35% 할인해 1만5000원에 선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 제품은 비락몰 쇼핑몰(www.vilacvom.co.kr)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주)비락 행상수 전무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랑해준 고객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착한 가격의 제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밀수시도 외항선원 검거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시가 6억원(5만 정) 상당의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보관하며 밀수를 시도한 외항선원 김모(48)씨와 국내 전달책 정모(55)씨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세관에 압수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부산세관 제공

# 전통체험·책교환…어린이날 잔치 한마당

## 부산서 다양한 행사 마련…볼거리·즐길거리 풍성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부산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된다.

우선 '제40회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가 5일 오전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전시장과 야외광장에서 어린이 등 4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어린이날 기념행사, 축하행사, 체험놀이 한마당, 아동박람회, 도서 교환전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개그맨 허정환의 사회로 ▲강남스타일 춤 ▲다이내믹 치어리딩 ▲의장대 퍼포먼스 ▲아이돌 가수 빅스 걸그룹 씨스타 축하공연 ▲맛있는 뮤지컬 '비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전시장에서는 부산시·부산은행 주관으로 70개 부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우드펜시 체험, 리본공예, 열기구 만들기, 다문화 체험 등이 진행되고 어린이재단과 아동복지협회 주관 아동박람회가 열린다. 또 야외광장에서는 뽀로로 등 대형 전시물을 활용한 포토존 운영, 전통체험, 소방 안전 체험,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등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의 입장권은 어른·어린이 각 1000원으로 부산은행 지점과 인터파크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당일 현장 판매는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당일 오전 10시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인 '어린이날 사랑나눔축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축제 한마당에서는 유아체험학습장을 개방하고 늘푸른 놀이공원, 야외체험마당과 문화공연, 과학과 신체 활동이 융합된 에어바운스·에어본놀이, 사랑나눔장터, 동물 캐릭터 및 키다리 삐에로 아저씨와의 사진 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부산시 어린이회관에서도 오전 10시부터 '가족문화대축제'를 연다. 어린이회관은 최첨단 전시실과 동화마을길 3D 입체 그림, 이순신광장, 놀이마당, 청죽마루, 예진비동산 무대, 사화의 길 등 모든 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부산시민도서관은 벡스코에서 '제12회 범시민도서교환전'을 개최한다. 도서 교환은 확보된 새 책 또는 교환용 문화상품권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교환 방법 및 범위로는 본인이 읽은 책 1권으로 다른 사람이 읽은 책 1권 교환, 읽은 책 3권으로 새 책 1권 또는 문화상품권 1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인 10권 이내로 교환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민도서관은 지역 서점의 후원을 받아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위한 아동도서와 성인을 위한 양질의 도서 5000여 권을 준비했다. 또 부산은행 후원으로 2000만원 상당의 도서교환권(문화상품권)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스포원(옛 부산경륜공단)에서는 어린이 경륜왕 대회, 페이스 페인팅, 장기자랑 등을 진행한다.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헌 신발로 베트남 어린이 도와요 울산 울주군 삼정초등학교(교장 김순자) 삼정어린이자치회 임원과 학생들은 헌 신발을 모아 베트남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박닐에 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삼정어린이자치회는 2일 울주군 RCE(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에 전달했다. 전달한 헌 신발은 베트남으로 전해진다. /울산교육청 제공

## '조선통신사' 축제 오늘 팡파르

한·일 두 나라 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축제'가 3일 막을 연다.

이 행사는 3일 '통신사야 놀자!'를 비롯해 조선통신사 국제학술 심포지엄, '조선통신사의 밤'을 시작으로 4일 조선통신사 평화의 행렬, 한·일 뮤직 콘서트 등 조선통신사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5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조선통신사 평화의 행렬은 시민의 참여 신청을 받아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일본 행렬에는 시세보시 세이란을 비롯해 일본 7개 도시의 8개 공연단체가 참가해 일본 전통 춤인 요사코이 공연 등을 연출한다. 또 체험행사와 전시행사로 구성된 '통신사야! 놀자!'에서는 조선통신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조선통신사를 이용한 5틀시 찾기, 캐리커처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된다. 매년 진행되던 해신제도 용두산공원 특설무대로 자리를 옮겨 '조선통신사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 부산과기대 – 부산중부소방서 화재피해 줄이기 협약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부산중부소방서는 지난 1일 오전 11시30분 대학 내 본관 12층 중회의실에서 관학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 정책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기로 약속했다.

또 소방 관련 학과 교수 및 학생의 연수 및 현장실습 기회 제공, 관련 학과 교육과정 협의, 각종 소방 관련 전문 자문위원 참여, 각종 문화행사 개최 및 인적 교류 활성화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상호 업무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대학의 우수한 정보 인프라와 교육시설을 적극 활용한 소방 정책 및 기술 개발과 함께 안전관리 시스템의 변화, 개선을 통한 화재 피해 최소화에 상호 적극 노력키로 했다.

## 이수용 원장 병원협회장상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이수용(왼쪽) 의학원장이 최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13년도 부산시병원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서 대한병원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수용 의학원장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국민 보건 향상과 지역의 병원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고 의학원 측은 설명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장상은 보건의료 발전과 병원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병원장 등 의료인을 발굴해 공적을 치하하고, 참된 병원인의 상을 널리 알리고자 제정됐다.

## 수학·과학 영재학습관 오픈

부산시 초등영재교육원(원장 박정옥)은 3일 오전 10시 부산 유일의 초등 수학·과학 영재전용학습관의 증축공사를 마치고 개관식을 개최한다. 총 사업비 34억8900만원을 들여 증축한 영재학습관은 연면적 1723㎡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최첨단 기자재를 구비한 스마트 학습실과 실험 전용 과학실, 학습용 노트북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영역별 특성에 맞게 교수·학습 환경을 구성하고 학생 개인 사물함 및 휴게 공간을 설치하기도 했다.

# 불평 들어주는게 직업

## 일본서 '10분당 1000엔' 회사 속속 등장…"고객 심리안정제 역할"

최근 일본에서 고민이나 불평을 들어주는 회사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2006년 설립된 '남의 말 잘 들어주는 클럽'은 10분당 1000엔(약 1만1000원)을 받고 전화로 불평을 들어준다. 2008년부터 이용객이 늘어 지금까지 상담에 응한 건수는 총 3만 건에 달한다.

고객의 80%는 두 번 이상 이 서비스를 이용한 단골이다. 평균 70~80분간 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장 9시간50분 동안 불평을 늘어놓은 고객도 있다. 불평 내용은 세대별로 다르지만 결국 인간 관계의 고민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회사의 가쿠모토 유즈 대표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다들 자기 일에 바쁜 세상이 됐다"며 "다들 우리 같은 '심리 안정제'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엔 거리 무료 알바도 생겨**

거리에서 돈을 받지 않고 남의 불평을 들어주는 사람도 늘고 있다. 대학 4학년인 하야시 후미키(26·여)와 구직 활동 중인 도키타 신이치(29).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도쿄 고엔지 상점가에 책상과 의자를 펼친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거리 상담소'에서 사람들의 불평을 들어주고 있다.

하야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말주변이 없는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였다. 하야시는 지난 1년간 약 340명의 불평을 들어주는 동안 자신도 변했다고 느끼고 있다. 그는 "내 잘못된 점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됐다"며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원 디나카 세이타로(30)도 2011년 여름부터 오사카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디나카의 활동이 소개되면서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도쿄 시부야, 요코하마, 도쿠시마 등 10곳에서 남의 불평을 들어주고 있다.

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임상심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영업에 필요한 대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등 다양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미기자 csm@metroseoul.co.kr

## 伊우파, 흑인 장관 '원숭이' 비하 논란

이탈리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흑인 장관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인종차별 문제가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엔리코 레타(46)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달 28일 좌우파 및 중도파가 망라된 대연정을 출범시키면서 세실 키엔주(48·여·사진) 하원의원을 국민통합 장관으로 기용했다. 국민 화합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제스처였다.

그러나 총리의 기대와 달리 우파 웹사이트와 정치인들은 키엔주 장관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키엔주 장관을 '콩고의 원숭이' '줄루족' '반이탈리아적인 흑인' 등으로 지칭하는 비방글을 올렸다. 키엔주 장관에 대한 비방에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내각에 참여했던 우파 북부동맹 정치인들도 가세했다.

사태가 커지자 레타 총리는 1일(현지시간) 키엔주 장관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웹사이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키엔주 장관은 레타 총리 내각의 여성 장관 7명 중 한 명이다. 중도좌파 성향으로 지난 2월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태어나 30년 전 이탈리아로 유학와 안과의사가 됐다. 현재 이탈리아인 남편과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조선미기자

美 이민자 노동절 시위 1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도심에서 노동절을 맞아 열린 시위에서 이민자들과 시민운동가들이 정부에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수천 명의 시위대는 '추방 금지' 등의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펼쳤다. /AP 연합뉴스

## 중국 휴양지 펜션 "Wife 됩니다"

중국의 한 휴양지 펜션의 '와이프(Wife) 됩니다'라는 이상한 간판이 웃겼다. 유흥업소를 연상시키는 이 문구는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WiFi)의 영문 철자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지나가다 이를 본 관광객들은 폭소했다. /메트로 홍콩

## 일요일은 '유기견의 날' 11년째 광장 입양행사

metro Mexico

멕시코시티에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강아지 일요일' 행사가 열렸다.

강아지 일요일은 유기견에게 주인을 찾아주는 프로젝트로 2002년 6월부터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열리고 있다.

행사 주최자인 아론 리베라는 "시민들에게 입양을 구걸하고 강아지와 함께하는 사진과 비디오를 찍는다"면서 "비디오 인터뷰에서 시민들은 강아지의 어디가 예쁘고 왜 입양돼야 하는지 설명한다"고 말했다. 운이 좋은 강아지는 이날 주인을 찾는다.

강아지 일요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버려진 개의 주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기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유기견들은 보호소에서 음식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지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에서 혼자 보내기 때문에 산책이나 놀이 시간 등이 부족해요. 강아지 일요일이 소풍날인 셈이죠."

행사의 다른 주최자인 아론 리베라의 동생 나탈리에는 "몇 년 전 아론이 강아지를 입양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면서 "주인 없는 강아지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주인을 찾은 개는 100여 마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가한 디아나 히메네스(18)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는데 참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강아지들을 입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슬리에 야기미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일〉

| 코스피 | 코스닥 | 금리 | 환율 |
|---|---|---|---|
| 1957.21 (−6.74) | 560.48 (−3.36) | 2.44 (−0.05) | 1101.50 (−3.00) |

## 꿈틀대는 실수요자에 2만6000가구 손짓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본격 시행으로 그동안 갈팡질팡하던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분양 시장도 활력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달에는 46개 단지에서 일반 분양 물량 2만6331가구가 새로 분양된다. 서울에선 재건축·재개발 단지 분양이 예정됐다. 마포구 아현동 아현4구역을 재개발한 '공덕자이'와 종로구 무악동 '인왕산 2차 아이파크',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역 코오롱 하늘채' 등에서 각각 1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에서는 정자동에 위치한 'SK스카이뷰' 전용면적 59~146㎡ 총 3498가구가 28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단지 규모가 매우 크고 다양한 전용면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는 '유호엔시티II(2단지)'가 10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인기 지역의 분양 단지를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 코스피200 오를 '칠공주' 잡아라

## 이마트·코스맥스 등 7개 종목 다음달 신규편입 가능성 높아

다음달 코스피200 종목의 변경을 앞두고 증시 전문가들은 "새로 편입되는 종목을 미리 사서 변경 발표 전에 파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면서도 "실적에 기반한 투자가 아니라 단기성 이벤트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대신증권은 오는 6월 14일 예정된 '2013년 코스피200 정기 변경'에서 이마트, 한국항공우주, 코스맥스, 휴비스, 넥센, 코리아써키트, 대한GDS 등 7개 종목이 새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시장 상황을 반영해 코스피200 종목을 변경한다. 올해엔 서비스업 중에서는 한진중공업이 빠지고 이마트가 신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에서는 동부제철, 대한제분 등 6개사가 제외되고 한국항공우주, 코스맥스 등이 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에 편입되면 개별 종목의 위상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투자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인 매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단기성 투자로 접근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추이를 볼 때 새로 선정되는 예상 종목을 30일 전에 사서 발표 이틀 전에 파는 전략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며 "신규 편입 종목은 사고 제외되는 종목은 공매도 거래하면서 투자 위험을 상쇄하는 롱숏 전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중호 동양증권 연구원은 "발표 1주일 전에 사서 변경 발표 당일이나 전날에 팔 경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짚었다.

올해 증시가 예년 수준이라면 이 같은 단기 투자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최동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07년 이후 6년 동안 코스피200에 새로 들어간 종목들의 5~6월 수익률(변경 완료 시점까지)은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했다"고 말했다.

김영일 연구원은 "다만 앞으로 한 달간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예년과 같은 전략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 뉴스&뉴스

**미샤 선크림 신제품 출시** 2일 서울 여의도 씨알리히티하우스에서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가 자외선 차단에 스킨케어 기능까지 추가한 '올-어라운드 세이프 블록 선밀크' 3종을 출시 홍보를 하고 있다. /한림뉴스

### 펀드수익률로 수수료 책정

● 앞으로는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야 이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수수료가 높아지게 된다. 펀드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금융감독원은 펀드의 성과 연동 운용 보수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펀드의 수익률이 낮을 때에도 미리 정한 보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펀드 적용, 투자자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롯데백 '마블 캐릭터 전' 히어로 총출동** 롯데백화점은 2일 서울 소공동 본점에서 아이언맨, 헐크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권불 속 21가 히어로의 실물 사이즈를 전시, 체험하는 '마블 히어로 캐릭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캐릭터 페스티벌은 5일까지 본점에서 열리며 캐릭터 상품전도 함께 진행된다. /한림뉴스

## 쌀·김치는 대형마트 채소는 시장서 구입

도시 거주 주부들이 쌀, 김치는 대형마트에서, 채소는 전통시장에서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2010년부터 3년 동안 수도권 2인 이상 가구의 주부 1000여 명이 매일 기록한 농식품 구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분석 결과 농식품 중 구입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역시 쌀로 연간 18만9723원어치를 샀고 이 중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비율은 25.4%였다. 전통시장에서의 쌀 구입 비율은 4.6%에 그쳤다.

대형마트에서의 장류와 김치 구입 비율은 각각 37.1%, 34.8%로 전통시장에서의 3.8%, 11.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반면 오이와 양파 등 채소류는 전통시장 구입 비율이 높아 각각 26.1%, 22.4%로 조사됐다. /이국명기자

현대차 SUV '뉴 투싼ix' 출시 2일 오전 서울 문화역 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모델들이 HID 헤드램프와 LED 포지셔닝 램프를 새롭게 장착한 현대차 SUV '뉴 투싼ix'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WWW' 만들고 특허 안낸 그

## 웹 창시 팀 버너스 리 서울디지털 포럼 참석·디지털시대 "협업" 강조

21세기 첨단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의 인터넷을 만든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월드와이드웹(WWW)의 창시자 팀 버너스 리(58·사진)는 "사람들이 협력하고 협업하기 위해 웹을 만들었다. 문화적 경계를 넘는다면 진정한 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는 2일 서울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2013'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내 머릿속에 있는 부분적 해답과 다른 사람 머릿속에 있는 부분적인 해답을 맞춰서 세상의 과제를 풀고 싶었다. WWW 특허를 신청하지 않은 배경"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 1967년 미국 스탠퍼드대연구소에서 처음 탄생했지만 일부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91년 리가 WWW를 개발하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이 됐다.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중요한 100대 인물에 선정됐다.

그는 웹을 매개로 한 초협력 개념을 강조하면서 자동차와 IT의 융합을 예로 들었다.

리는 "조만간 HTML5 기반의 장치나 프로그램이 차에 탑재될 것이다. 웹 플랫폼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TV, 컴퓨터에서 했던 체험을 차 안에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ML5는 웹 문서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 HTML의 최신 규격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브라우저에서 화려한 그래픽 효과를 구현하며 음악·동영상을 쉽게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리는 2년 전 튀니지 '재스민 혁명'에서 촉발된 아프리카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웹의 개방성이 민주화를 촉진한다고 힘줘 말했다.

익명성이 보장된 글과 의견이 뜰어 올라오면서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커졌다는 것이다. 리는 "북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소통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미래를 예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인터넷의 아버지'는 현재의 모바일 열풍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리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닐까. 모바일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이라고 말해 웹플랫폼이 여전히 비교우위에 있음을 시사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 태블릿 시장서도 밀리는 애플

## 아이패드 점유율 39% 작년보다 18%P 낮아

모바일 절대 강자 애플의 위상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태블릿 PC 시장점유율은 물론 모바일 운영체제(OS) 트래픽도 삼성전자와 구글을 선봉에 내세운 안드로이드 진영에 갈수록 밀리는 추세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DC는 지난 1분기 태블릿 PC 출하량 집계 결과 아이패드가 1950만 대 출하돼 시장점유율 39.6%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8.1%보다 18.5%포인트,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의 43.6%보다 4%포인트 줄어진 수치다.

반면 삼성전자는 1분기 88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17.9%를 기록하며 2위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포인트 올랐다. 3위는 270만 대(5.5%)를 출하한 아이수스가 차지했으며 아마존닷컴(3.7%)과 마이크로소프트(1.8%)가 뒤를 이었다.

웹 트래픽에서도 안드로이드 진영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통시장정보업체 넷애플리케이션은 고객 4만 명을 대상으로 4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운영체제의 웹 트래픽을 조사한 결과 안드로이드가 26.02%를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의 19.27%보다 6.7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에 비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iOS는 지난해 동기보다 4.15% 낮아진 59.04%에 그쳤다.

/이국명기자 kmlee@

뉴스&뉴스

꽃이 배고플땐 LED 반짝 종합가전회사 모뉴엘은 세계 최초로 화분형 식물관리기 '마이플라워'를 선보였다. 화분에 꽂으면 물을 줘야하는 시기를 LED 램프로 알려준다. /모뉴엘 제공

# KT 스미싱 차단 앱 국내 이동통신사 최초 출시

● KT가 신종 금융사기 스미싱을 차단하는 앱 '올레 스미싱 차단'을 국내 이동통신사 최초로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앱은 스미싱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실시간 체크해 경고 및 삭제한다.

올레 스미싱 차단 앱은 올레마켓(market.olleh.com)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대리점에서 배포되는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KT 고객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정윤희기자

# 현대·기아차 엔저 아랑곳 미국시장 점유율 8.6%

●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올해 최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엔저라는 날개를 장착해 빠른 속도로 판매를 늘리고 있는 일본차 브랜드에 맞서 준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2일 미국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4월 자동차 판매 실적 집계 결과 현대차는 6만3315대, 기아차는 4만7556대로 모두 11만871대를 판매, 미국 시장점유율 8.6%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GM 23만7646대, 포드 21만1984대, 토요타 17만6160대, 크라이슬러 15만6698대, 혼다 13만9939대에 이어 6위에 랭크됐다. /박상훈기자

# "TV프로 실시간 반응, 트위터로 알 수 있죠"

광고주들이 트위터를 주목하는 이유?

이란 출신인 알리 로우가니(40) 트위터 COO(최고운영책임자)는 시청률보다 더 의미 있는 시청자 반응을 소개했다.

로우가니는 2일 서울디지털포럼에 연사로 나서 "최근 트위터를 모니터링하는 광고주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TV 시청 후는 물론 시청 중에 제도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TV를 보는 화면이 달라졌다. 시청자들은 재미있거나 감동을 받았다면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광고주들이 특정 프로그램을 본 사람의 수(시청률)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미국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슈퍼볼 경기에서 사람들은 트위터로 실시간 의견을 나눴고 비욘세 등 인기 가수의 공연에 대해서도 각자의 생각을 공유했다.

특히 슈퍼볼 중간중간 등장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재미있다" "기발하다"와 같은 느낌을 주고받았다.

로우가니는 "닐슨 등 조사기관에 따르면 TV 시청 중 트위터 이용이 4.5% 늘 때마다 시청률은 1%가 오른다. 소비자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트위터와 같은 SNS를 병행하는 TV 광고도 소개했다.

미국 인기 가수인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등장하는 대형할인점 '타깃'의 광고가 좋은 예다. 타깃은 트위터 등을 이용해 팀버레이크의 새 음반 출시를 알리는 CF로 눈길을 끌었다. /박성훈기자 zen@

# 부모 기쁘는 '어린이 무료의 날'

### 4~5일 연휴 테마파크·리조트 할인 정보 체크!

5월은 유난히 지출이 많아지는 달이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지만 줄줄이 꼬리를 무는 기념일을 챙기느라 얇아질 지갑이 걱정이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테마파크·리조트가 각종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소풍길에 나서기 전 입장료 할인율과 무료 이벤트를 꼼꼼하게 체크하면 오히려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행과 모험을 즐길 수 있다.

웅진플레이도시는 4~5일 양일간 '어린이 공짜' 이벤트를 진행한다. 어린이를 포함한 4인 이상 가족이 워터파크·스파를 이용할 경우 어린이 1명을 무료로 입장시켜 준다. 실내 눈썰매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유료 입장한 보호자 1인과 동반한 어린이 1명의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보호자 & 어린이 1+1'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션월드(사진 아래)는 4~5일 유료 입장 성인 2인과 동반한 미취학 아동에게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같은 조건의 초등학생은 1만원 균일가에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다. 혜택은 각 1일당 선착순 1000명에 한하며 일행당 최대 3인까지 가능하다(단체고객 제외).

한화상록리조트는 4~5일 연휴 기간 중 방문한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의 놀이공원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고객이 워터파크 아쿠아피아를 이용할 경우 반값 할인 행사도 함께 연다.

용신 드래곤힐스파는 5일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 고객의 입장료 5000원을 현장에서 할인해주고,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는 이날 어린이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롯데월드(위)는 가족과 신나는 시간을 보내면서 불우한 친구들을 위해 기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행사를 마련했다.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어린이에게 희망을' 이벤트는 5월 한달간 어린이 티켓 1장당 100원을 유니세프에 기부한다. 조성된 기금은 아프리카 식수 사업 후원에 쓰인다.

/권보운기자 kwon@metroseoul.co.kr

## 이번달 목요일 쿠팡서 '랑' 히트상품 만나세요

화장품 브랜드 랑(LLang)이 '감사의 달'을 맞아 쿠팡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다양한 혜택을 전한다.

5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랑 브랜드의 히트 상품 총 4가지를 선보인다. 랑 흥윤결 보디 2종, 랑 워터밸런스 에센스 젤 1+1, 랑 레드진 매직 2종 감사 세트, 랑 모이스트 브라이트닝 3종 세트 등이다.

론칭 기념으로 응원 댓글을 올린 15명을 추첨해 소녀시대 수영의 친필 사인이 있는 랑 용品 2종 세트를 증정하고, 선착순 구매 고객 100명에게 랑 이너지 밸런스 미스트를 준다.

## 류승룡 '남자라면' UCC 대박

### 특유의 능청연기 발휘 나흘만에 80만번 조회

배우 류승룡이 출연한 팔도의 남자라면 UCC가 또 한번 대박을 터뜨렸다.

팔도는 지난달 29일 유튜브에 공개한 남자라면 UCC가 조회수 80만 건 이상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UCC는 류승룡의 미션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인터랙티브 무비(Interactive Movie)' 형식이라 더욱 뜨거운 반응을 얻을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실제로 인터랙티브 UCC의 경우 참여자의 결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몰입도가 높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SM7과 하이트의 드라이피니시d 등도 인터랙티브 동영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한 남자라면 UCC는 류승룡을 남자라면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항해 소비자가 총 4가지 미션을 해결해야 하는 내용이다.

미션은 '남자다운 의상을 골라라', '촬영파트너 닭을 구하라', '진짜 CF감독을 구하라', '악연맛의 매트릭스로부터 탈출하라'로 구성돼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 과정에서 류승룡의 능청 연기과 오미주 기법을 활용한 UCC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남자라면 UCC는 유튜브 검색창에 '남자라면 비긴즈'로 검색하거나 유튜브 주소(bit.ly/153mlC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팔도 광고디자인팀 김기홍 팀장은 "소비자가 함께 공감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UCC를 통해 남자라면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 LED쇼·묘기·폭죽… 신나는 밤

### 서울랜드 야간 이벤트 풍성 5월 한달 자유이용권 할인

어린이날을 앞두고 서울랜드가 두 눈을 사로잡는 한밤의 이벤트를 준비했다.

오후 5시 야간 개장 이후 진행되는 '라이트 판타지쇼'는 3일부터 9월 말까지 서울랜드 미래의 나라에 위치한 빨간풍차 앞에서 펼쳐진다.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착안한 '라이트 판타지쇼'는 방수 기능을 갖춘 LED를 사용해 만든 벽천과 장미터널, 생명의 나무가 분수와 함께 어우러져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또 다른 야간 공연 '쇼 점프 매직 투션'(사진)은 관객들의 가슴을 졸이는 아찔한 퍼포먼스로 눈길을 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초대형 박쿨 안에서 세 명의 무용단이 벌어질 듯 아슬아슬한 곡예를 펼친다. 그 옆에는 트램펄린을 활용한 고공 점프 묘기가 선을 보이며 긴장감을 더한다. 화려한 군무를 마지막으로 수십 발의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어린이들의 친구 브루미즈, 캐니멀, 키드라이더, 엉포 등 TV 속 인기 캐릭터도 서울랜드를 찾는다. 포포티와 퍼디는 시간여행 '어메이징 로드쇼' 등 캐릭터와 함께하는 퍼레이드를 비롯해 6가지 캐릭터 놀이시설도 새로 문을 열었다.

한편 서울랜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자유이용권 할인 이벤트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롯데카드로 결제하는 고객 본인에게는 자유이용권을 1만원에 판매하고, 동반 3인에게는 3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SKT 멤버십 고객 본인은 주중 이용권을 40%, 주말 이용권을 50%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올레KT 멤버십 고객 본인은 11일 당일 자유이용권을 무료로 증정한다. /권보운기자

# 올빼미 슈에뜨 앉은 나노 항균쿠션

### 베개·방석 등 구성 '미오셀 아테나' 세트 15% 할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가정의달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15% 저렴한 가격에 미오셀 아테나 세트 구성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미오셀은 머리카락 1600분의 1 크기의 나노 섬유로 만들어진 항균 원단이다.

이번 세트는 패션 브랜드 럭키슈에뜨의 올빼미 캐릭터 '슈에뜨'가 프린팅된 다양한 미오셀 제품으로 구성됐다.

비비드한 옐로 컬러 위에 올빼미 패턴으로 트렌디함을 더한 미니 베개(4만7000원)와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슈에뜨 쿠션(8만7000원) 세트는 정상가보다 2만100원 저렴한 11만3900원에 판매한다. 푸션감이 돋보이는 방석(7만7000원)과 편안한 목베개(5만7000원) 구성은 11만3900원에, 방석과 미니 베개는 10만5400원에, 방석과 올빼미 쿠션은 13만9400원에 준비됐다.

조이코오롱(www.joykolon.com)을 비롯해 텐바이텐(www.10x10.co.kr), 천삼백케이(www.1300k.com), CJ몰(www.cjmall.com), GS샵(www.gsshop.com)에서 판매한다.

# 스무디킹 '100대 프랜차이즈'에

## 맥도날드·KFC 등에 이어 글로벌 브랜드 중 65위

스무디 전문 브랜드 스무디킹이 최근 글로벌 프랜차이즈 컨설팅 회사인 프랜차이즈 다이렉트가 발표한 '2013 글로벌 100대 프랜차이즈'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경제 중심지에 10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디이렉트는 매년 세계 각국의 프랜차이즈 업체를 조사해 글로벌 프랜차이즈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2013 글로벌 100대 프랜차이즈'는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률, 브랜드 진출 시장 확대 추이, 본사 지원 및 교육 실태 등 다양한 분야의 엄선된 기준을 통해 평가됐다.

랭킹에는 스무디킹 외에 서브웨이, 세븐일레븐, 맥도날드, KFC, 버거킹 등 대표적인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함께 포함됐다. 특히 스무디킹이 65위, 잠바주스가 100위를 각각 차지해 스무디 주스 등 건강 음료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군의 밝은 전망을 보여줬다.

스무디킹은 현재 세계 중심에 있는 미국 사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면서 해외 시장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해 빠른 글로벌화를 이뤄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스무디킹코리아가 미국 본사를 인수하면서 오리지널 스무디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10년간 한국에서 다져온 성공적인 경영 전략을 접목시켜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특히 본사 인수 5개월 만에 싱가포르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이달 2호점까지 오픈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스무디킹 관계자는 "앞으로 브랜드 세계화를 위해 다이어트나 뷰티, 밴드업과 같은 제품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활동 영역을 넓혀 글로벌 넘버원 건강 음료 브랜드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 애벌레 라바 스타처럼 바쁘네

## 행사·마케팅 캐릭터로 TV밖의 러브콜 줄이어

애벌레 캐릭터 라바가 어린이날을 맞아 텔레비전 밖 세상으로 나온다.

가장 먼저 한국잡월드가 개최하는 '꿈 찾기 걷기대회'에 응원단장으로 나선다. 한국잡월드 광장에서부터 탄천 도보길을 따라 왕복 5km를 걸어 돌아오는 코스로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잡월드 내 카페와 어린이체험관에서 라바 애니메이션이 상영되며, 캐릭터 인형이 퍼레이드에 나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어린이날 당일인 5일에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라바와 함께하는 키즈 파티가 진행된다. 후지필름에서 운영하는 포토 퍼즐 체험 공간을 비롯해 라바와 함께 게임 및 댄스 배우기, 라바 작은 도서관 등으로 구성되며 월드존에서는 라바와 함께 세계 10여 개국의 문화·의상·악기·놀이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홈플러스는 라바 디지털상품권을 10만원 이상 구입하면 라바 인형,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선착순 증정하고 라바 포토 상품 할인권도 함께 증정한다.

/권보람기자

신한금융그룹
5월은… 푸르구나~
5월, 가정의 달!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행복맞춤 이벤트!!
희망맞춤 (손에 손잡고!)
신한은행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판에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찍은 사진'과 서로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사연 5가족을 선정하여
'가족 여행 상품권'을 드립니다
■ 응모대상 고객 누구나 참여 가능
■ 응모방법 신한은행 페이스북 (www.fb.com/shinhanbank.kr) 이벤트 게시판에 가족모두가 손잡고 찍은 사진과 응원 메시지 작성 (200자 이내)
■ 응모기간 5월 1일 ~ 5월 16일
■ 당첨자 발표 6월 3일 (신한은행 페이스북)
가족맞춤 (우리가족 영화 보는 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신한은행 고객이나
삼대(三代)가족이 영화 관람을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하여 가족 모두를 가족 애니메이션
'크루즈 패밀리' 시사회 및 이벤트행사에
초청합니다. (400명)
■ 응모대상 2인 이상 자녀 보유 고객 또는 삼대(三代) 이상 관람 신청 고객
■ 응모방법 당행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
■ 응모기간 2013년 5월 1일 ~ 14일
■ 당첨자 발표 2013년 5월 16일 (신한은행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 행사일시 / 상영관 2013년 5월 25일 10:30 ~ 12:30 / 건대롯데시네마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저축은행 | 신한데이터시스템 | 신한아이타스 | 신한신용정보 | 신한PE투자자문

# ‘위대한 개츠비’ 로맨틱 3종 세트

## 포스터 공개하고 내일부터 예매 … 칸 영화제 개막식에선 3D 상영

제66회 칸 국제영화제 개막작 '위대한 개츠비'가 로맨틱 3종 포스터를 공개하고 4일부터 본격적인 예매에 돌입한다.

F 스콧 피츠제럴드의 명작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으로, 이번주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3종 포스터는 주요 등장인물의 엇갈린 관계와 속내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남녀 주인공 개츠비(리어나도 디캐프리오)와 데이지(캐리 멀리건)가 파티장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첫 번째 포스터는 한때 연인이었던 이들이 남들의 시선을 피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이다.

두 번째는 데이지의 유일한 친구 조던(엘리자베스 데비키)과 욕심쟁이 닉(토비 맥과이어)이 개츠비를 돕기 위해 밀담을 나누는 모습이며, 세 번째는 뉴욕의 마천루를 내려다 보는 개츠비의 쓸쓸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한편 이 영화는 15일(현지시간) 열릴 칸 개막식에서 3D로 상영된다. 칸 개막작이 3D로 상영되기는 2009년 애니메이션 '업' 이후 두 번째이며, 실사 극영화론 처음이다. 가장 큰 볼거리인 대규모 파티 장면 등이 깊이감을 더해 관객들과 현지 영화 관계자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16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4일부터 예매가 시작된다. 2D와 3D로 모두 관람이 가능하며, 예매 시작을 기념해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특별 이벤트가 마련된다. 예매 소식을 친구에게 알리면 추첨을 통해 원작 번역자로 나선 김영하 작가의 친필 사인이 새겨진 책과 골드 북마크를 받을 수 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w nd6686@naver.com

HOT PHOTO

**지금은 웃고 있지만** 5명의 범죄자 아버지와 이들의 후계자가 밝은 얼굴로 한자리에 모였다. 영화 '화이'의 조진웅, 장현성, 김성균, 김윤석, 장준환 감독, 여진구, 박해준(왼쪽부터)이 시가 향(?)으로의 지난주 촬영 필로를 축하하는 기념 촬영에 나섰다. 이 작품은 소년 화이(여진구)가 아버지처럼 자신을 키워준 사내들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복수한다는 줄거리로, '지구를 지켜라'의 장준환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올 하반기 개봉 예정.

▶ 웃고 있지만 왠지 피바람이 불 것 같네요. /조성준기자

## ‘화이트 하우스 다운’ 들고 한국 찾은 에머리히 감독

'인디펜던스 데이' '투모로우' '2012'를 연출한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이 한국의 재난영화에 관심을 드러냈다.

신작 '화이트 하우스 다운' 개봉(다음달 27일)에 앞서 내한한 그는 2일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해운대'를 봤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무척 재미있게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분간 재난영화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도 "지금은 '인디펜던스 데이' 속편이나 사극에 집중하고 싶은데 다시 재난영화 장르를 만들게 되면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덧붙였다.

4년 만에 내한한 에머리히 감독이 이번에 내놓는 '화이트 하우스 다운'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차별 공격으로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내용을 그렸다. 대통령(제이미 폭스) 경호원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존 케일(채닝 테이텀)이 딸과 함께 백악관 투어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딸과 대통령을 구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는 내용이다. 에머리히 감독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에서 벌어지는 액션영화다. 고양이와 쥐 사이에 쫓고 쫓기는 싸움, 내부로부터의 위협, 미국인 간의 싸움을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이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순호기자 suno@

#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뮤토리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 Day 21 What color is your purse? 사물 묘사하기

###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Look at that table.
B Hmm. 난 저 테이블의 모양이 마음에 들어.
A I like it too.
B Well, 이 테이블은 저것보다 더 길어.
A Yes, it is. Wow, I like the table cloth.
B 이 소재는 촉감이 부드러워.

정답 I like the shape of that table. / This table is longer than that one. / This material feels soft.

### 생생영어팁

▶ It's within a stone's throw.
(그곳은)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어요.

공간적인 거리를 묘사하는 표현 하나 배워볼까요? 직역하면 '돌을 던져서 가는 거리 안쯤 떨어져 있다'는 뜻의 It's within a stone's throw는 우리말로 했을 때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다'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within은 어느 한곗의 거리나 시간 내에 라는 뜻이죠. 비슷한 표현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할 때는 You can walk there 라고 표현합니다.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2

---

## Business English 데미덱 이메일사전

### 오랜만에 연락을 할 때
Contacting someone after a long time

지난 번 메일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죠.
It's been much too long since I wrote you.

지난 이메일 이후로 꽤 지났네요.
I know it's been a while since I last emailed.

연락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I'm sorry I've been fallen behind on our correspondence.

회신이 지연된 것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the delay in my response.

더 일찍 메일을 쓰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I'm so sorry I didn't write earlier.

---

##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The Belnite Waterfall is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 _____ on the island.
(A) attracting (B) attractive
(C) attractions (D) attracts

02 Candidates for the position of assistant manager must be _____ of assuming a wide range of responsibilities.
(A) capable (B) enclosed
(C) selected (D) ready

01. 벨나이트 폭포는 그 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한 곳이다.
해설 문맥상 '관광 명소'를 의미하는 복합명사인 tourist attractions를 쓴다.
어휘 waterfall 폭포, attract 끌다, 유인하다, attractive 매력적인
정답 (C) attractions

02. 부지배인 직책의 지원자들은 다양한 책무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
해설 빈칸 뒤의 전치사 of와 함께 '~할 수 있다'를 의미하는 be capable of -ing를 쓴다. 참고로 'be able to 동사원형'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어휘 assume (책임 등을) 맡다, 모으다 responsibility 책임, 의무 enclosed 동봉된, 에워싸인
정답 (A) capable

---

##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 Part 4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 숫자 읽기

Part 4에서 제시되는 표에는 시간, 날짜, 금액 등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숫자 표현은 읽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정확히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시간

앞에서부터 차례로 읽어 나가는 것이 쉽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 | | |
|---|---|---|---|
| 10:00 A.M. | ten A.M. | 11:45 A.M. | eleven forty-five A.M. |
| 12:00 P.M. | twelve P.M. | 2:00-3:00 P.M. | from two to three P.M. |

to/before(~전), past/after(~후), a quarter(15분), half(30분)를 이용하여 읽을 수도 있습니다.

| | | | |
|---|---|---|---|
| 10:15 | a quarter past ten | 3:15 | a quarter after three |
| 11:45 | a quarter to twelve | 8:45 | a quarter before nine |
| 4:30 | half past four | 5:30 | thirty minutes after five |

Tip 2:00~3:00 P.M.는 between two and three P.M.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half는 'l' 발음을 하지 않고, [hæf] 에 로 발음합니다.

---

'젠틀맨' 빌보드 5위→26위 하락 … "예상했던 일"

# 싸이 역전 기회 남았다

싸이가 빌보드 대역전극을 노린다.

신곡 '젠틀맨'은 미국 빌보드 매거진인 빌보드 비즈가 2일 발표한 핫 100 차트에서 지난주보다 21계단 떨어진 26위를 기록했다. 지난주 7계단 상승한 5위에 올라 정상 정복의 희망을 봤지만 오히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반전의 기회는 남아있다. 싸이는 지난달 25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아이튠즈 순위가 내려가고 있어 다음주엔 (빌보드 순위가) 좀 떨어질 것 같다"며 "라디오나 TV 등 인론매체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면 아이튠즈 순위의 재상승이 기대된다. 2~3주 안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성적은 싸이의 전망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다. 현재까지 라디오 방송 횟수에서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순위 상승을 기대하게 한다. 싸이는 3일 뉴욕 록펠러센터에서 열리는 NBC '투데이쇼' 공연에 참가하는 등 본격적인 현지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순호기자

# 이효리 이번엔 복고풍 섹시

**신곡 '미스코리아' 티저 공개**

3년을 기다린 가수 이효리의 섹시 콘셉트가 공개됐다.

정규 5집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효리는 6일 수록곡 '미스코리아'를 선공개하며 이에 앞서 2일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2010년 4월 발표한 4집 이후 3년여 만에 내놓는 신곡이다.

'미스코리아'는 이효리가 작사·작곡한 곡으로 아날로그적인 밴드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이다. 댄스곡은 아니지만 안무가 가미될 수 있는 템포가 빠른 곡이다.

'미스코리아 출전한 이효리'라는 소개와 함께 시작하는 티저 영상은 흑백으로 제작돼 섹시한 복고풍 이미지를 담았다. 이효리는 화려한 의상과 스타일을 한 채 여성 댄서들과 호흡을 맞추며 '비코즈 아임 어 미스코리아'라고 노래해 '섹시 퀸'의 귀환을 알렸다.

6일 '미스코리아' 음원과 함께 뮤직비디오도 공개되며 앨범은 21일 출시된다. 타이틀곡은 댄스곡이 유력하다. /탁진현 기자

신화

# 신·구 짐승돌 화끈한 대결

**2PM 6일 새 앨범 '그로운' 출시… 신화 16일 정규 11집 '더 클래식' 발표**

신구 '짐승돌'이 불날 여심을 잡기 위해 정면충돌한다.

거친 남성미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2PM과 원조 섹시 아이돌 그룹인 신화가 열흘 간격으로 새 앨범을 발표하고 피할 수 없는 대결을 벌인다.

데뷔 6년째를 맞은 2PM은 지난달 일본 도쿄돔 공연에서 최장수 아이돌 그룹인 신화가 롤모델이라 밝힌 바 있어 선후배가 벌일 선의의 경쟁에 관심이 쏠린다.

2년 만에 돌아온 2PM은 오랜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 앨범에 무게감을 실었다. 6일 출시할 정규 3집에 모두 12곡을 수록했으며 더블 타이틀곡으로 활동한다. 더욱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앨범 제목을 '그로운(grown)'이라 지었다.

멤버들은 싱어송라이터 재능도 발휘해 준호와 준케이는 각각 3곡과 2곡을 작사·작곡했다. 찬성은 1곡의 작사, 택연은 6곡의 랩 메이킹에 참여했다.

2일 공개한 첫 번째 타이틀곡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의 이미지 컷에는 클래식한 패션을 한 멤버들의 쓸쓸한 분위기가 눈길을 끈다.

1년 만에 컴백하는 신화는 16일 정규 11집 '더 클래식'을 발표한다. 신화컴퍼니는 "기존 신화의 색깔을 잃지 않되 새로움을 더하고자 했다. 댄스곡과 대중성 있는 노래를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1~2일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했고 지난달 24일 MBC '쇼! 음악중심'~라디오스타' 녹화를 마쳤다. 4일에는 생방송되는 케이블 tvN 'SNL 코리아'에 출연한다.

음반 활동과 함께 아시아투어도 진행한다. 다음달 8일 홍콩을 시작으로 상하이·타이베이·도쿄·베이징을 도는 '2013 신화 그랜드 투어 더 클래식'을 개최한다. 아시아투어는 8월 3~4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마무리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 송일국, 서경덕 교수와 함께 막걸리 알리기

사극 스타 송일국이 이영애에 이어 우리 음식 알리기에 나선다.

송일국은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사진 왼쪽) 성신여대 교수와 손잡고 이달 말 미국 대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막걸리 광고를 게재한다.

서 교수는 "드라마 '대장금'의 이영애씨가 비빔밥 모델로 나서 2월 뉴욕타임스에 광고한 이후 홍보 효과가 좋아 또 다른 한류스타를 찾게 됐다"며 "'주몽'으로 아시아와 중동 유럽에서 널리 인기를 얻고 있는 송일국씨에게 막걸리 광고모델을 제안했고 흔쾌히 수락했다"고 말했다.

광고모델로 재능을 기부한 송일국은 "한식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 무조건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지난해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막걸리 영상 광고를 올렸으며 올해 초부터 MBC '무한도전' 출연진과 함께 제작한 비빔밥 영상 광고를 세계 주요 도시 메인 전광판에 상영하는 '비빔밥 월드투어'를 진행 중이다. /유순호기자

세계를
알립니다
국내최대 민영 뉴스통신사
NEWSis( )
2001년 9월 국내에 복수 뉴스통신사 시대를
열며 탄생한 뉴시스가 올해로 11년을 맞았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뉴시스는 변함없이
24시간 불을 밝히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is( )
www.newsis.com

# metro enjoy weekend

# 커피향따라 서촌 한바퀴 옛정취따라

한옥 인테리어가 멋스러운 카페 '옥인길26'의 내부 /손진영기자 son@

변화한 서울 한복판에서 옛것을 지켜내며 고상하게 늙은 동네가 있다. 통인동·체부동·효자동 등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이어진 경복궁 서쪽 마을, 서촌(西村)이다. 요즘 같은 봄날, 느리게 걸으며 '관찰'을 하기 좋은 이곳은 고서점과 이발소, 쌀집 등 1960년대 서울의 정취와 낭만이 곳곳에 스며 있다.

이렇게 사람 냄새 가득한 서촌에 최근 커피 향이 더해졌다. 멋스러운 머리에 변한 '골목 여행자'들이 몰리면서 옛 헤 전부터 허름한 국밥집, 분식점을 비집고 트렌디한 카페들이 하나둘 둥지를 틀기 시작한 것. 그런데 참 신기하다.

**광화문 옆 고상한 마력 뽐는 '낭만 동네'**
**1960년대 풍경 사이 한곳 두곳 카페 늘어**
**커피공방·옥인길26 등 10여곳 조용한 인기**

저마다 독특한 감성을 지닌 카페인데, 서촌만의 고풍스러움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

햇살 좋았던 지난달 30일 '커피 로드'로 변신 중인 서촌의 고즈넉한 골목길을 찾았다. 경복궁 지하철역 2번 출구에서 초록색 마을버스 '종로 9번' 길을 따라 종점인 '인왕산 수성동 계곡'까지, 느린 걸음으로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골목길에는 10개 남짓한 카페가 자리하고 있었다.

북작대는 금천시장을 지나 새마을금고를 끼고 돌자 고소한 원두 볶는 냄새가 진동한다. 직접 볶은 커피 맛이 일품인 '**커피공방**' 매장이다. 고작 테이블 4개인 작은 매장 안은 전 세계 커피콩과 아기자기한 커피 소품들로 가득하다. 이곳의 공동대표 엄혜림씨는 "자신만의 문화를 가진 카페가 늘어나면서 또 하나의 서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변화가 반갑다"고 활짝 웃었다.

차가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다시 걷는다. '끼익~'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는 마을버스 서는 소리를 뒤로 하고 샛길로 빠지니 긴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대오서점이 모습을 드러낸다. 1934년에 지은 한옥 건물로 외관과 간판이 60년 전 그대로다.

담장 낮은 한옥, 아기자기한 공방을 따라 들어선 '**옥인길26**'은 주소를 상호명으로 쓴 카페. 주인장 박성화씨 역시 서촌의 포근한 분위기에 반해 1년 전쯤 카페를 오픈했다. 현대식 외관과 달리 통유리창 너머 보이는 내부는 영락없는 한옥집이다. 매일 아침 8시 정성껏 내린 커피와 달콤한 쿠키를 파는데, 진한 아메리카노와 사케라토를 더한 '아이스 스위트 커피'가 인기다.

바로 맞은편 서촌 코뮤니타 '**혜이네**'는 카페라기보다는 서촌 주민들의 '사랑방'이다. 기타 강습에서 요리교실까지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곳에서 벌어진다.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녹차 등 음료 가격은 기본이 2000원. 그 이상은 자율 기부로 받고 있다.

'**와이엠(YM)**'은 이름의 영문 이니셜이 YM으로 같은 구영모·김유미 커플이 운영하는 카페다. 바리스타인 남자친구가 커피를 내리고, 사진을 전공한 여자친구가 아기자기한 소품과 자신의 사진 작품으로 실내를 꾸몄다.

향긋한 커피 향을 따라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는 사이 어느새 종점이다. 신축 빌라와 낡은 아파트 너머 인왕산 자락의 푸른 나무와 수성동 계곡이 펼쳐진다. 깔끔하게 조성된 산책로 앞 구는 '**굿띵(goodthing)**' 카페가 지키고 있다.

운치 있는 빨간색 나무문을 열고 들어서면 외할머니 툇처럼 아늑한 인테리어가 반긴다. 바리스타의 정성이 깃든 핸드 드립커피와 에스프레소가 유명하다. 넓은 통유리창 너머 인왕산의 생기 넘치는 기운을 느끼며 쉬어가기 좋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수성동 계곡 · 마을버스 9번 종점 · 풀잎 카페 · 티벳뮤지엄 카페티벳 · 솔다워&카페 · 박노수 가옥 · 카페 "YM" · 옥인상회 by 서울공책스 · 카페&쿠키 "옥인길 26" · 서촌 코뮤니티 "혜이네" · 이상범 가옥 · 마을정자 · 대오서점 · 프로젝트 28 · 오후 카페 · 커피공방 · 새마을금고 · 경복궁역 2번 출구

■서촌 카페 지도

## 강북에 뜨는 세 갈래 커피로드

**●합정동 카페거리: 합정역 5번 출구 오른쪽 첫 번째 골목길부터**

상권으로 바뀌어버린 홍대에서 조금씩 밀려나 합정동에 자리 잡은 카페들은 주택을 리모델링한 곳이 대부분인데 화사한 인테리어와 각기 다른 개성으로 한껏 치장하고 있다. 샌드위치, 샐러드, 에그 프라이 등 간단한 홈메이드 메뉴를 갖춘 카페도 있어 고즈넉하게 브런치를 즐기기 좋다. 동화 속이나 외국의 거리에 온 듯 풍경이 아름다워 친구·연인과 디지털 카메라 하나 들고 놀러가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연남동 카페거리: 홍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기찻길 방면**

조금은 허름한 듯한 연남동 골목으로 들어서면 빈티지한 소품으로 멋을 낸 '땡땡카페'들이 하나 둘 눈에 띈다.

연남동 카페 앞에선 "한 바퀴 둘러보고 다시 오면 되지"라는 여유는 통하지 않는다. 문 밖에서 '찜'해놓은 그 자리를 어느 틈에 찾아온 단골손님이 차지하기 일쑤다.

특히 조촐한 입간판이 눈에 띄는 '**카페리브러**'는 들고 나설 때 정문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룬다.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이 '착한 카페'로 인정하면서 뜻밖의 유명세를 탄 이곳은 산지에서 직접 공수한 공정무역 원두로 내린 커피가 두터운 크레마층을 자랑한다.

**●상수동 카페거리: 상수역 3번 출구에서 상수동사거리 방면**

벽의 그라피티 아트가 눈길을 끄는 상수동 카페거리는 마치 현대미술작품을 보는 듯하다. 각목 단면을 모자이크처럼 이어 붙여 시멘 얼굴로 만든 카페 '**상수동 플루스**'와 해바라기 꽃으로 간판을 대신한 카페가 눈길을 끈다. 톡톡 튀는 신예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그 문화 다방&갤러리**'에서는 순하고 똑똑한 강아지 검둥이가 손님을 반갑게 맞아준다. 벽면 가득 책이 꽂혀있는 '**이리카페**'는 유명 뮤지션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물간 잡지도 발행하고 있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 프로야구 전적 2일

■잠실

| 팀 | 1-3 | 4-6 | 7-9 | | 계 |
|---|---|---|---|---|---|
| KIA | 000 | 004 | 000 | | 4 |
| 두산 | 020 | 003 | 10X | | 6 |

[illegible]

■대전

| 팀 | 1-3 | 4-6 | 7-9 | | 계 |
|---|---|---|---|---|---|
| 롯데 | 201 | 000 | 100 | | 4 |
| 한화 | 001 | 001 | 100 | | 3 |

[illegible]

■대구 (연장 10회)

| 팀 | 1-3 | 4-6 | 7-9 | 10 | 계 |
|---|---|---|---|---|---|
| 넥센 | 000 | 000 | 102 | 1 | 4 |
| 삼성 | 000 | 010 | 002 | [illegible] | 3 |

[illegible]

■마산

| 팀 | 1-3 | 4-6 | 7-9 | | 계 |
|---|---|---|---|---|---|
| LG | 000 | 000 | 000 | 1 | 1 |
| NC | 110 | 002 | 40X | 8 | 8 |

[illegible]

### 스포츠브리핑

**■ 박지성 카디프로 임대될수도"**

잉글랜드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에서 뛰는 박지성이 카디프시티로 임대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언론은 2일 "QPR이 박지성을 이적시키지 못할 경우 임대 형식으로 다른 팀에 보낼 수 있다"며 "카디프시티가 박지성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챔피언십(2부) 리그로 강등이 확정된 QPR이 주급 7만5000파운드(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박지성의 몸값에 부담을 느껴 내보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확정한 카디프시티는 리그 잔류를 위해 박지성과 같은 노련한 선수가 필요하다.

**■ 박인비 KB금융과 스폰서 계약**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박인비가 KB금융그룹과 메인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

박인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2일 "박인비는 3일부터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의 킹스밀 리조트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킹스밀 챔피언십부터 KB금융그룹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쓴다"며 "후원 계약 조인식도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후원금과 인센티브 등에 있어 선수 위상에 적합한 수준에서 결정했다"며 자세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 추신수 4타수 무안타 침묵**

추신수(31 신시내티 레즈)의 방망이가 잠시 숨을 골랐다.

추신수는 2일 열린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올 시즌 타율은 0.337에서 0.324로 떨어졌다. 오른손 선발 랜스 린을 맞아 세 차례 연속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고, 8회에는 바뀐 투수 트레버 로젠탈의 초구를 때렸지만 유격수 뜬공으로 잡혔다. 신시내티는 2-4로 패했다.

# 막내 NC, LG 꺾고 창단 첫 3연승

### 선발 이태양 1피안타 7K 역투

프로야구 막내 NC 다이노스가 창단 첫 3연승을 기록했다.

NC는 2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계속된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LG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이태양의 호투를 앞세워 8-1로 승리했다.

NC는 사흘 동안 26안타를 터뜨렸고, 답답하던 실책은 하나도 저지르지 않는 등 야수진의 상승세가 뚜렷해 5월의 반격을 기대케 했다.

NC 선발 이태양은 LG 타선에 안타를 단 1개만 내주고 삼진 7개를 잡아내는 위력적인 투구로 선보이 시즌 2승(1패)째를 올렸다.

LG는 지난달 11일 NC에 창단 첫 승리를 헌납한 데 이어 3연전을 모두 내주면서 막대 구단에 유독 약한 모습을 떨치지 못했다.

잠실 경기에서는 두산이 양의지의 맹타를 앞세워 KIA에 6-4로 역전승, 2연패에서 탈출했다. 이날 잠실에는 2만7000명의 관중이 모두 들어차 주중 3연전 내내 만원을 기록했다.

2일 한화와 롯데 전에서 1회초 롯데 손아섭이 2루 도루를 하자 한화 유격수 이대수가 점프를 한 상태에서 태그를 하고 있다. 결과는 손아섭의 세이프. /뉴시스

잠실구장에서 주중 3연전이 모두 매진된 것은 1995년 5월 30일~6월 1일 열린 LG와 OB의 경기 이후 18년 만이다.

두산은 KIA 선발 김진우의 제구가 흔들린 사이 2회 두 점을 먼저 따냈다. 선발 등판한 이정호의 날카로운 공에 당황한 기색을 보인 KIA 타자들은 타순이 두 바퀴 돌자 적응을 마친 듯 공략에 나서 6회에만 4점을 뽑아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두산에 3연패의 악운이 드리우는 듯했지만, 흔들리던 타선의 집중력이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다.

연속 볼넷과 상대 실책을 엮어 1사 1, 3루를 만든 두산은 양의지와 임재철의 연속 안타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상대 폭투 때 양의지가 홈을 파고들어 5-4로 경기를 뒤집는 뚝심을 보였다.

대전에서는 롯데가 4번 타자 김대우의 시즌 첫 홈런에 힘입어 한화를 4-3으로 제압했다. /연합뉴스

# 뮌헨 '트레블' 달성 보인다

### 25일 도르트문트와 챔피언스리그 결승 격돌

유럽 최고 명문 클럽을 가리는 2012-201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가 독일 팀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바이에른 뮌헨은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열린 대회 4강 2차전에서 아르연 로번의 결승골과 상대 자책골, 토마스 뮐러의 쐐기골에 힘입어 바르셀로나를 3-0으로 눌렀다.

지난주 1차전 홈경기에서 바르셀로나를 4-0으로 대파한 뮌헨은 1-2차전 합계 7-0으로 바르셀로나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아르연 로번(가운데)이 2일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후반 2분 선제골을 넣자 뮌헨 팀 동료들이 끌어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지난해 첼시에 가로막혀 준우승에 그친 뮌헨은 통산 다섯 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또 정규리그 우승컵을 이미 확보해 DFB포칼까지 트레블(3관왕) 달성의 희망을 이어갔다. 결승전은 25일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도르트문트와 단판 승부로 펼쳐진다.

뮌헨은 경기 시작부터 바르셀로나의 볼 배급을 차단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5골 차 이상 승리가 필요한 바르셀로나는 급한 마음에 실수를 연발했고, 뮌헨의 수비를 전혀 뚫지 못했다.

오히려 뮌헨이 후반 시작하자마자 로번의 선제골로 앞서갔다. 이어 후반 27분 바르셀로나 수비수 헤라르드 피케의 자책골을 얻어냈고, 후반 31분 프랑크 리베리의 쐐기골로 대승을 마무리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 4승 도전 류현진 상대는 SF 젊은 에이스 맷 케인

괴물 류현진(26 LA 다저스)이 샌프란시스코의 젊은 에이스 맷 케인(29·사진)과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1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 후 류현진의 빼어난 투구를 극찬하며 6일 샌프란시스코와의 원정 3연전 마지막 경기에 선발 등판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경기 시간은 오전 9시(한국시간)다.

현재 류현진은 다저스에서 클레이튼 커쇼, 테드 릴리에 이어 등판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배리 지토, 라이언 보겔송, 맷 케인 순으로 나서 류현진의 맞대결 상대는 케인이 유력하다.

최근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한 케인은 지난해 16승5패 평균자책점 2.79를 올리며 최고 전성기를 누렸다. 다만 올해 6경기에 나서 2패 평균자책점 6.49를 기록하는 등 고전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 임상협 뜨면 여성팬 '화들짝'

### K리그 최고 꽃미남 이동국 18% 지지 2위

부산 아이파크의 공격수 임상협(25·사진)이 국내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최고 '꽃미남'으로 뽑혔다.

임상협은 프로축구연맹이 지난달 25~30일 'K리그 최고 꽃미남 선수'를 뽑는 설문에서 557표(30.2%)를 얻어 1위에 올랐다. 라이언킹 이동국(전북)이 339표(18.4%)를 획득해 2위를 차지했고, 수비수 홍정호(제주)와 박용지(울산), 한지호(부산) 등이 뒤를 이었다.

2009년 전북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임상협은 2011년 부산으로 이적해 10골을 터뜨리며 '꽃미남 골잡이'로 이름을 날렸다. /김민준기자